



2015 수학 검정교과서의 문제점 분석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7. 12. 05.)

12/7(목), 2015 수학 검정교과서의 문제점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2015 수학 검정교과서의 문제점 분석 발표와 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 사교육걱정은 2015 수학 검정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 개정 취지의 핵심인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실행하기 불가능한 결함이 수학 검정교과서에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 이에 사교육걱정은 신동근 국회의원실과 함께 2차 연속토론회를 기획하였고, 11/29일 1차 토론회를 열어 수학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으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 개선에 대한 학계, 현장교사, 학부모와 학생의 절실한 요청을 확인한 반면 정책을 실현하는 교육부 정책 담당자의 방관적인 태도에서 큰 온도차를 확인함.
- ▲ 기자회견을 통해 수학 검정교과서가 학생의 참여 중심의 수업에 부적합한 이유와 과정 중심 평가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 당사자인 교육부에 해명을 요구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12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2015 수학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그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수포자 문제로 대변되는 수학교육의 문제는 우리 교육의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깊은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일방주입식 수업과 오지선다형 찍기 시험으로 점철된 수학교육의 문제점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수학교육은 언제까지 이런 암울한 터널에 학생들을 가두어 두어야 할까요?

사교육걱정은 올 가을에 공개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검정교과서가 개정 취지의 핵심인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신동근 국회의원실과 함께 2차 연속토론회를 기획하였고, 11/29일 1차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 개선에 대한 학계, 현장교사, 학부모와 학생의 절실한 요청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석한 토론자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다양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수학 교과서로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한 뜻을 모았습니다.

반면 정책을 실현하는 교육부 정책 담당자의 답변은 2015 개정 취지에 맞게 잘 만들었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쳐 현실의 문제점을 전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개선의 의지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차 토론회를 통해 현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성의 없는 의견에서 큰 온도차를 확인 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수학 검정교과서가 학생의 참여 중심의 수업에 부적합한 이유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와 수학 검정교과서가 내놓은 과정 중심 평가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 당사자인 교육부에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15 수학 검정교과서의 문제점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2017. 12. 0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수학사교육포럼 연구원 고여진(02-797-4044/내선번호 513)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